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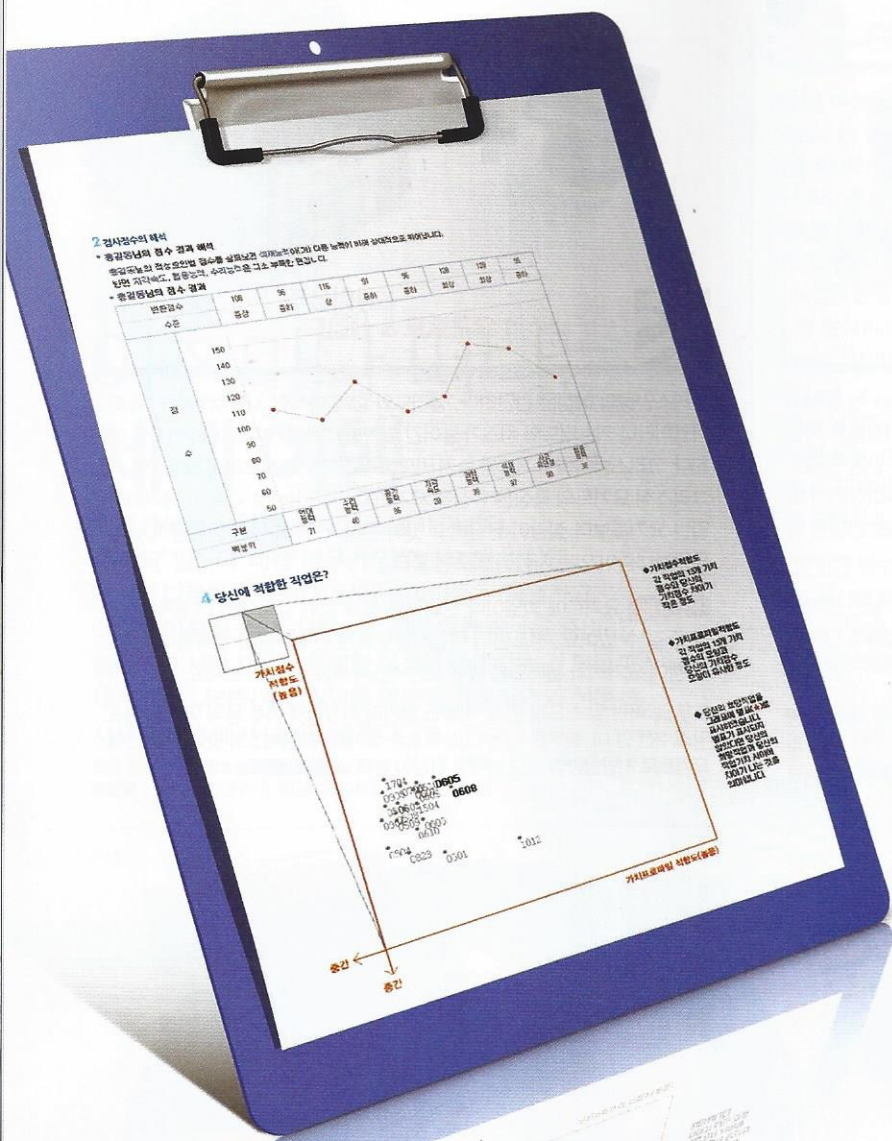
CHECK POINT 01

학교 검사, 사설 상담 기관과 다르지 않아

“학기 초에 중2 딸이 ‘청소년 진로 발달 검사’ 결과지를 가져왔어요. 초등 교사가 꿈인데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게 나왔어요. 딸이 ‘교사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실망하네요.”

“중3 아들이 학교에서 가져온 ‘정신 건강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서 안정 지수가 평균보다 낮게 나왔더라고요. 심란한 마음에 담임선생님께 여쭙보니 같은 반 남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며, 검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네요.”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부설 마음 지음 상담센터 김나영 전임상담원은 “여름방학이 되면 학기 초에 학교에서 진행한 학습이나 진로 검사 결과지를 들고 사설 상담 기관을 찾는 학부모가 많다”고 말한다. 검사 결과가 신빙성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김 전임상담원은 “청소년 적성 흥미 검사, 청소년 적성 검사, 청소년 진로 발달 검사 등은 통계 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개인 간 오차 범위가 클 수 있다”고 말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사설 상담 기관용과 비교하면 검사 항목이나 기법엔 차이가 없지만, 아이 상태에 따라 같은 검사라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름방학, 내 아이 마음 들여다볼까?
학습·진로·심리 검사
체크포인트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이면 학년 초에 학습이나 진로, 심리 검사 결과지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진행하고 피드백 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내용에 당황하거나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 몰라 난감해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름방학을 활용해 좀더 심층적인 검사를 계획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독해 역량과 컨디션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자녀의 학년과 목적에 맞는 검사 선택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취재 심정민 리포터 request0863@naeil.com 도움말 김나영 전임상담원(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부설 마음 지음 상담센터) 박세린 소장(김진교육개발원) · 조기연 원장(오산이동발달센터) 자료 제공 워크넷 · 커리어넷 · 한국고용정보원

CHECK POINT 02

중1 심리 검사, 중3 진로·적성 검사 추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사의 오차 범위가 큰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 김진교 육개발원 박세린 소장은 “검사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문항에 응답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면 대충 체크하기도 한다. 집중력이 약하거나 차분하게 글을 읽는 것을 힘들어 하는 아이일수록 검사 문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한다.

검사 내용이나 진행 방식도 중요하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지선다형과 같은 선택형 문항에서 선지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면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 ‘가장 가까운 것 혹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 검사 결과를 논할 때 중요한 항목은 피검사자의 학년과 독해력 수준. 박 소장은 “독해력 능력이 부족하면 60~100개 문항에 달하는 설문에 제대로 응답하기 어렵다. 중학교 1학년인데 중3이나 고1에게 적합한 검사를 하는 것 역시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한다. 사실 상담 기관을 이용할 때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검사에 응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질문하면서 답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향후 진로나 학습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지’ 피드백 여부를 파악하는 것 역시 필수다. 중학교 입학 전에 시력 테스트를 통해 난시나 근시가 있는지 체크하고, 난독증 검사로 독서 능력에 이상이 없는지 알아보는 게 먼저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 ‘교우 관계가 원만한지’ 알아보는 심리 검사가 적합. 중3은 적성에 맞는 계열 선택을 고민하는 시기이므로, 진로 성숙도와 학습 전략 등을 알아보는 검사가 필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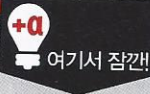
CHECK POINT 03

결과는 자녀와 공유, 객관적 해석 상담 필요

엄마들이 ‘검사 결과를 자녀와 공유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은 자녀에게 낙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오산아동발달센터 조기연 원장은 “자녀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라고 권한다. 초등 저학년이면 모를까, 청소년은 이 시기에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전한다. 단, 결과지에 드러난 약점은 “이런 게 부족한데,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는 정도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걸 잘하는지 이제야 알았다” “너에게 이런 성품이 있다니 놀랍다”고 말하면서 칭찬과 인정으로 결과를 공유하면 문제없다.

결과에 대한 객관적 해석은 필수다. 조 원장은 “학교에서 진행한 검사 결과지에는 해당 연구 기관의 상담 전화번호가 있다. 자녀의 신상을 알리고, 보다 자세한 해석을 요청하면 담당 연구원이 피검사자의 환경을 고려해 상담해준다”고 전한다. 한국가이던스는 결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홈페이지(www.guidance.co.kr)에 방문해 접속 번호를 입력하면 검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사실 상담 기관의 검사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결과를 분석하면 10만 원 정도이고, 피검사자에 맞는 객관적 해석이 뒤따르면 2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여기에 진로와 학습, 성향 분석, 학과나 계열 선택 상담을 제공 받으면 70만 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



여름방학, 학습·진로·심리 검사 어디에서?

□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main/subIndex/694.do)에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학습과 진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료는 무료. 초등부터 고등까지 학년별 검사가 다양하다. 심리 검사는 40여 개로, 직업과 학과 정보 역시 알차다. 검사 시간은 학년과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른데 보통 30~70분. 온라인과 지필 두 가지 방법이며, 온라인으로 검사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로 전화해 전문 직업 상담원에게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들을 수 있다.

□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온라인 검사에 익숙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도 이용해볼 만하다. 커리어넷의 진로 성숙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 해석을 진행하며 비용은 무료다. 보통 직업 적성·직업 흥미·직업 가치관·진로 성숙도 등 다섯 가지인데, 시간이 걸려도 전부 검사하는 것을 권한다. 진로 성숙도가 지나치게 낮게 나오면 적성·흥미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성숙도가 75점 이상 나오면 그 결과를 참고할 만하다.